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14일 목포신항을 찾은 추모객들이 세월호를 바라보며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내일 세월호 5주기...3대 과제 풀어야

- ① 세월호 선체 어디로-특조위 조사 끝날 때까지 거처장소 유예
- ② 해군 세월호 DVR 바꿔치기 의혹-검찰 전면 재수사 필요
- ③ 추모공간 신설 갈등-유가족 "팽목항에"... 전남도는 "글쎄"

2014년 온 국민을 절망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가 어느덧 5년이 흘렀다. 희생자 304명 중 5명은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진실규명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해결해야 할 3대 과제를 살펴봤다.

◇ 세월호 거처 후보 장소 여전히 불투명 = 현재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선체 전체를 보존하기 위한 장소로 단원고 소재지인 안산 대부도와 세월호의 출항지인 인천, 도착 예정지였던 제주도, 사고 해역인 진도, 현재 세월호가 거처된 목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활동을 종료한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회는 활동 마무리에 앞서 지난해 5월 1000여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세월호 보존·처리 방안 설문조사를 벌인 바 있다.

설문 결과 선체 보존에 대해서는 전체 보존(46%), 일부 보존(22%), 폐기(15%), 상정물 활용(12%) 등 순이었다. 거처 장소로는 진도(37%), 안산(26%), 목포(21%), 인천(6%), 제주도(2%)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세월호 거처 장소로 목포·대부도·진도 등 3곳이 거론되고 있으며, 유가족·특조위 내부 관계자 등에 의하면 대부도가 유력한 상태다.

특조위 관계자는 "세월호 거처 장소가 5곳으로 압축된 것은 맞다"면서도 "특조위 조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거처장소를 유예하기로 했으며, 당분간 세월호 진상규명 조사에 초점을 맞출 생각"이라고 말했다.

◇ 각종 의혹 풀리지 않은 진상규명 = 지난해 28일 특조위는 중간발표 기자회견을

를 열고 해군이 세월호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한 CC-TV 영상저장장치(DVR)가 원본이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군이 세월호 침몰원인 등이 담겨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로 지목된 DVR을 수거하면서 고의적으로 원본 본체를 바꾸고, 영상까지 조작·편집한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가족협의회도 DVR 은폐 등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특조위 발표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통령님께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를 지시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16일 세월호 참사 5주기까지 20만 명의 시민이 동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게시물은 14일 오후 4시 현재 10만8624명이 동의했다.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침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저장장치인 DVR 조작·은폐 증거가 드러났을 세월호 참사 진실을 위해

선 반드시 검찰의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추모공간 신설 놓고 대립 = 세월호 유가족 등은 진도 팽목항에 4·16기억공간을 조성해 추모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와 진도군 등은 팽목항 인근에 기억공간과 기능이 중복되는 국민해양안전관이 들어서 예정이라며 기록관 건립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팽목국민대책위원회 등은 지난달 10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팽목 4·16기억공간 조성을 위한 집담회를 열기도 했다. 진도군은 국민해양안전관을 2020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오는 6월 착공할 예정이다.

국민해양안전관은 세월호참사의 현장인 팽목항에서 500여m 떨어진 임회면 남동리 일원 10만㎡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팽목 4·16 기록관 신설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해수부 등과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현경 기자 young@kwangju.co.kr

## 눈에 잘 띄는 원색의 빨간색 모자 덕분에... 광주·전남 집 나간 치매노인 3명 잇단 구조

치매노인에게 눈 잘 띄는 원색의 모자나 소품 등을 입히는 게 사고 예방은 물론 실종시 구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기온이 영하권 가까이 떨어진 지난 주말 광주·전남에서 집을 나간 치매노인 3명이 모두 무사히 구조됐는데, 3일 만에 야산에서 발견된 한 치매노인은 헬기수색 과정에서 원색의 빨간색 모자 덕분에 눈에 띄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14일 전남지방경찰청·해남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밤 9시 5분께 해남군 북일면에 거주하는 A(82)씨가 실종됐다는 요양보호사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치매를 앓고 있는 이씨는 남색 상하의와 빨간색 모자 차림으로 산나물을 캐러 인근 야산에 올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야산을 중심으로 헬기와 인력, 구조·수색견, 드론 등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다.

이씨는 수색 3일째인 13일 오전 9시 40분께 저공 비행 중이던 전남지방경찰청 항공대 헬기 탑승 경찰관이 '빨간색 모자'로 보이는 물체를 포착하며 구조될 수 있었다. 상황 전파를 받은 순천소방서

산악119구조대는 구조견을 투입해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바위 옆에 웅크리고 있는 이씨를 발견했다.

이씨는 사흘간 산에서 추위에 떨어야 했지만, 두터운 외투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 새벽 3시30분께에는 북구 동림동 인근 호남고속도로를 위험하게 걷고 있던 70대 B씨가 경찰에 발견돼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당시 "치매를 앓고 있는 남편이 없어졌다"는 B씨 부인의 신고를 전파 받은 북부경찰서 동운지구대 경찰관은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고, 산만 보인다"는 B씨와의 휴대전화 통화 등을 토대로 B씨를 발견해 구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1시 10분께에는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C(여·80)씨가 구조됐다. 서부경찰서 화정지구대에 구조된 C씨는 의식을 잃었지만 집 위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소지품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경찰은 평소 관리하던 치매 노인 관련 서류에서 본 C씨의 사진을 기억하고, 서류를 찾아 신원을 파악해 가족에게 무사히 인계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사실혼 관계인 남녀 다투다 흥기 찢린 30대 남성 숨겨

지난 13일 자정께 강진군 한 마을 주택에서 A(32)씨가 흥기에 찢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사실혼 관계인 B(여·34)씨와 술을 마시고 다투던 중 주택에서 흥기를 들고 나왔으며, 이를 뺏으려는 B씨와 실랑이를 하다 좌측 가슴을 흥기에 찢렸다.

A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던 중과다 출혈로 숨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며 B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 알고 지내던 여성 살해 5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전북 남원경찰은 1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남원 시내 한 모텔 객실에서 지인 4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는 다량의 혈흔이 발견됐다. 그러나 긴급체포된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시신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예식장 여직원 탈의실에 몰카 설치 남직원 징역 10개월

예식장의 여직원 탈의실에 몰카카메라를 설치하고 이용자의 탈의 장면을 불법 촬영을 한 30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황영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광주 모예식장 여직원 탈의실 내부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 12명의 탈의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예식장에서 근무하며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내연 관계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도 몰래 촬영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남시꾼 위장...영세어민 선외기 엔진 훔친 일당 구속

서남해안 일대를 돌며 영세 어민들의 선외기 엔진 수습대를 훔친 일당이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은 "지난 12일 상습수습도 혐의로 A(3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초부터 이달 초까지 목포, 무안, 영암, 진도, 해남 일대 항구 등에서 소형 어선 선외기 엔진 10대(40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남시꾼으로 위장하고 인적이 드문 항구나 갯벌에서 범행했으며 훔친 엔진 중 4대를 팔아 유혹비와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들이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엔진 4대와 전남 지역 시골 폐가에 숨긴 엔진 6대를 모두 압수했으며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목포=김병만 기자 dss6116@

## 재산 갈등에...동생 운영 목욕탕 출입문 곡괭이로 부순 형

○-재산문제로 화가나 동생이 운영하는 목욕탕 출입문을 곡괭이로 내리친 60대가 경찰서행.

○-14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A(60)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15분께 광주시 남구 동생 B(54)씨가 운영하는 목욕탕에 찾아가 남탕과 여탕으로 출입하는 유리문 2개를 곡괭이로 부쉘다는

것.

○-A씨와 동생 B씨는 오래 전부터 재산문제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목욕탕은 영업이 끝난 시간으로 손님이 없었다"면서 "A씨에 대해서는 재물손괴 혐의와 함께 업무방해 혐의 적용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경 기자 young@kwangju.co.kr

# 방수

##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지붕공사**

슬라브 옥상, 주택, 상가  
원룸, 데스리, 한옥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